

국립중앙과학관,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 「1°C의 변화, 80km의 대이동」 운영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미래 농업 주제 특강·현장 탐방
- 자연과학 이론교육과 현장 탐사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와 미래 농업 기술을 시민과 함께 이해하기 위한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 「1°C의 변화, 80km의 대이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며,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전문가와 함께 자연과학 이론 교육과 현장 탐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온이 1°C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지가 약 80km 북상할 수 있다는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농업 환경과 우리의 식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과 현장 탐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과 생물다양성 변화, 종자 보존의 중요성 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특강 2회와 연구 현장 탐방 1회로 구성된 총 3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특강(4월 11일)에서는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김광수 교수가 기후 데이터와 작물 재배 적지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 시스템 변화가 농업 생산 지역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두 번째 특강(5월 9일)에서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경영연구과 윤여태 박사가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벼 품종 ‘빠르미’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시대 농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실제 연구 성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 탐방(6월 24일)에서는 종자 보관소(시드 볼트, Seed Vault)가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와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미래 식량 자원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탐방이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변화와 과학기술의 대응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 교육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특강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	책임자	과장	김동희 (042-601-7850)
			연구사	김다솜 (042-601-798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1°C의 변화, 80km의 대이동

서울대학교 스마트시스템학과 김광수 교수님 초청 강연



시민자연과학탐사

일시 | 2026. 4. 11. (토) 14:00 ~ 15:00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나래홀

대상 | 제한없음(전연령)

문의 | 042-601-7750

*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해주세요.